

어릴 적 뛰놀던 보리밭의 추억

‘군산 풍당보리축제’ 5월 3일부터 6일까지

어릴 적 친구들과 뛰놀던 보리밭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군산의 대표적인 농업축제인 풍당보리축제가 5월 3일부터 6일까지 미성동 국제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군산풍당보리축제는 지난 2006년부터 미성동 주민들이 스스로가 지역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친환경보리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난달 12일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키워 나가자며 축제위원회 발대식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 축제는 그 동안에 느낄 수 있었던 끝없이 펼쳐지는 보리밭 사잇길을 걸으며 추억을 담은 것은

물론 다채로운 어린이 프로그램과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엄마랑 아빠랑 코너’에서는 물고기잡기, 전통농업체험, 잔치마당을 마련해 어렸을 적 추억을 되살리고 가족들과의 새로운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풍당런닝맨’은 5개 대장으로 구성된 대장들의 지휘 하에 5개의 다양한 게임과 체험으로 축제장 곳곳을 누비는 프로그램이다.

또 지역의 어린이들에게는 그림그리기, 글짓기를 통해서 보리밭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축제장을 찾는 도시민들에게는 보리를 재배해 볼 수 있는 ‘새



지난해 열린 군산 풍당보리축제 현장.

싹보리로 한 뽕 텃밭가꾸기 행사도 준비했다.

이외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리관련 제품 전시 홍보, 보리수제맥주 시음행사, 보리빵인 ‘보리진

포’ 홍보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군산 명품보리의 생산, 가공, 유통의 흐름을 이해하고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군산명품보리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대학로 원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최근 원룸대학교 대학로 원룸사기 사건에 연루된 대학생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원룸대학교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은 원룸 15개소, 120여명으로 피해액이 6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피

해접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부서별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유관기관과도 접촉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원룸관리자의 전기·수도·가스의 요금체납으로 인한 공금증단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법적대응이 힘든 학생들을 위하여 원룸대학교 법학전문 교수 및 익산시 변호사 협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학생들이 부동산 관련 경험이 적은 점을 이용한 원룸업자의 부동사기 사건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원룸사기 사건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결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였으며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전세금 보증보험 등 안전조치를 안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신청·접수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올해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대상 품목(4종)인 견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의 신청·접수를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고 범위는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에서 1만㎡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농협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조직(익산타미부조항공동사업법인)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출하계약서를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정현을 시장은 “본 사업을 통해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국가안전대진단 중간 보고회 개최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지난 4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박철용 부시장 주재로 시민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 18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서별 문제제기 및 건의사항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와 대진단 기간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는 7개 분야, 253개소의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중 199개소의 점검을 완료해 78.7%의 점검률을 보이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모든 대상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2019 국가안전대진단은 자율

점검 실천과 안전문화 운동 전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주택(일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점검표 배부·게시(부착)에 대한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율점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박철용 부시장은 “재난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할 것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경찰서,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집중단속

7월 31일까지 4개월간

군산경찰서(서장 안상엽)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제조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인 도심 주택가 옥상, 농어촌·도시

지역 화단, 텃밭, 비닐하우스 중심으로 전개되며 양귀비 밀경작, 대마 허가지역 내 임의 폐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사범과 향정사범, 대마사범 등은 대부분 양귀비 경작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 60대 이상의 노인들로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화초 양귀비와 정확히 구분을 하지 못한 채 관상용 또는 가정사비약으로 재배하다 적

발된 경우이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마약류 재배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단속 전에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1개월 동안 양귀비·대마 재배에 대해 홍보 후 계도와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불법재배 또는 자생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 및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는 익산문화재 야행이 백제왕궁 일원 이틀 동안 개최된다.

“백제왕궁 불밤 밝힌다”... 12일 익산문화재 야행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주관하는 2019 익산문화재 야행이 백제왕궁 일원(왕궁리유적, 탑리마을 등)에서 오는 12~13일 이틀 동안 개최된다.

행사는 야행 행사의 의미전달에 중점을 두기 위해 공식 개막식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왕궁후원에서 열리는 퓨전 버스킹 공연, 디지털로 체험하는 문화유산 환상의 VR, 주물 공예를 활용한 백제

등 띄우기 프로그램도 놓쳐서는 안 될 백제왕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이 팔 걷어 준비한 왕궁주막 먹거리와 지난해 이어 여전한 인기몰이 중인 천년기원 탐돌이는 늦은 시간까지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야행 행사의 의미전달에 중점을 두기 위해 공식 개막식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왕궁후원에서 열리는 퓨전 버스킹 공연, 디지털로 체험하는 문화유산 환상의 VR, 주물 공예를 활용한 백제

시 관계자는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야행은 단순 문화재 관람이 아닌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연과 전시, 체험 등 테마 위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천년역사 문화재와 불의 절정이 함께 공존하는 백제왕궁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채로운 불밤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지난 6일 군산시 월명동 구시청광장에서 ‘불맞이 도시재생 음악회’가 열렸다.

군산시, 구도심 불맞이 도시재생 음악회

군산시가 지난 6일 구도심 일원인 월명동 구시청광장에서 ‘불맞이 도시재생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선도 사업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수공예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문화기획 평비재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군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군산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주병선 도시재생과장은 “주말이면 항상 불맞이 월명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적으로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소소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며 “월명동 도시재생 지역을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실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